동아리톡톡

다양한 생각을 예술품으로 만들다

공예동아리 '아름다운 손'

동아리 '아름다운 손'은 공예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아름다운 손'은 올해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2015년 동아리가 처음 결성되었을 때에는 도예분야인 테디베어와 핑거니팅을 포함해 서양매듭 마크라메와 실크스크린, 손뜨개, 가죽공예, 캘리그라피, 미니어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동아리활동을 위해 도예분야는 '흙 만지는 아름다운 손'으로 분리되었다. '아름다운 손'은 현재 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아름다운 손'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워크숍과 정기모임 및 마당마켓을 열고 있다.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워크숍을 직접 진행해보면서 강의 경험을 쌓고 자신의 분야를 다른 회원들과 서로 공유한다. 마당마켓은 '아름다운 손' 작업실과 회원들의 공방 앞에서 열린다. 이때 작품전시와 동시에 작은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정월숙(45세·장림동)회장은 사하다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두송생활문화센터에서 회원들의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9~11월 프로그램으로 마을환경 개선 재능기부와 갈고 닦은 목공이야기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공예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좋겠다."고 말했다. 손뜨개분야의 회원 심미숙(48세·다대1동)씨는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나만의 일상이 있어 좋고 내 작품이 타인에게 칭찬받고 적정한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또 실크스크린을 하는 오지현(40세·장림동)씨는 결혼과 육아로 단절되었던 재능을 되살리기 위해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다며 "실크스크린이라는 새로운 장르에서 흥미를 느꼈고 첫 작품에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행복했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 "실크스크린은 다른 공예들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아 대부분 생소하게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접해볼 수 있도록 정규수업이나 체험학습의 기회를 가지고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실크스크린의 매력을 알리고 싶다"는 당찬 바람도 잊지 않았다.

회원들 대부분은 전시에 참여할 작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의 환경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워크숍이나 마당마켓에 참여하고 싶은 사하구민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한다. 무언가 만들고 싶은 욕구가 내면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아름다운 손'이 펼쳐놓은 마당에 참석해 보는 것은 어떨까.

천종숙 평생학습구민기자
tagore0308@hanmail.net

미니 인터뷰

코로나 너무 힘들어 비대면수업 감사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긴 했지만 학습자들은 여전히 새롭게 단장한 평생학습관을 두고도 마음껏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학습에 목말라있는 학습자들의 심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묘안에 대해 물어보았다.

▲한글교실 이용자 김진순(90세·당리동)

한 글자 한 글자 배우는 기쁨으로 몸이 아픈 줄도 몰랐는데 한글교실에 나오지 말라고 해서 몸도 아프고 우울하다. 배웠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코로나도 얼른 지나가고 한글교실을 새로 시작하면 좋겠다.

▲도서관 이용자 김미연(51세·당리동)

비대면 도서 대출을 이용하자니 직장인은 불편한 점이 많다. 직접 보고 고를 수 없어 추천도서 위주로 대출한다. 추천도서를 자주 선정해서 알려주는 방법은 없을까.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평생학습관 이용자 조아라(35세·하단동)

학습관 수업이 중단되어 아쉬웠는데, 비대면으로 학습을 이어갈 수 있어 고맙다. 단, 비대면수업, 홈학습키트 등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

최진 평생학습구민기자
jini3259@hanmail.net

평생학습 구민기자 유튜버 도전기

영상 속 내 모습 어색 완성된 작품엔 뿌듯

유튜브 등 영상제작 컨텐츠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평생학습홍보단 유튜브 영상제작기 수업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처음 열린 이번 유튜브 제작 강좌에 평생학습 구민기자가 참여했다.

수업은 5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3시간씩 총 12회 진행되었다.

첫 수업에서는 영상제작 방법을 배웠다. 유튜브 제작에 앞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 문제였다. 저작권 분쟁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었다. 채널을 기획할 때는 채널계획서로 콘텐츠를 먼저 정하고 기획안과 스토리보드도 작성해야 했다.

두 번째 수업부터 본격적으로 실기가 시작되었다. 내 얼굴을 찍으며 자신의 채널을 소개하는 첫 과제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촬영 시 카메라 화면 바라보기, 말하기 속도 등 모든 것이 어색했다. 30초의 화면을 2시간에 걸쳐 완성했다. 각자 만든 소개영상을 보며 다른 수강생들을 알아갈 수 있었다.

영상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컷, 자막, 오디오편집 등을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실습은 제2청사로 이전한 평생학습관을 홍보하는 것이었다. 3명이 팀을 만들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출연자와 촬영자로 나눠 영상 15개를 찍었다. 40분이 넘는 영상을 3분으로 편집했다. 작업은 힘들었지만 처음으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 순간이었다.

마지막 수업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수업은 처음이라 다들 낯설었지만 남은 수업을 들으며 수료식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마지막 과제는 부산현대미술관에서 관람하면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짧은 영상 속에 그동안 배웠던 편집 기술을 활용해 음악, 자막을 넣었다. 작업을 하면서 더 잘 만들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영상 완성 후 강사로부터 자막색상 변경 등 자세한 피드백을 받고 작품을 완성했다.

완성된 작품을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고 칭찬과 격려를 받으니 용기가 생겼고 뿌듯했다. 처음에는 유튜브에 관심이 많은 아이와 함께 영상을 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렇지만 제작에 참여하면서 이웃들과 더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함께 했던 수강생들과 유튜브 제작 동아리도 만들고 싶었다. 더불어 평생학습홍보단이 되고 싶은 꿈도 생겼다.

김민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사하구평생교육신문
사하배움마당
VOL.27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구
사하배움마당은 사하구 평생학습 구민기자가 만드는 평생학습 소식지입니다.
발행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전화 : 220-4801~6 팩스 : 220-4809 발행일 : 2020. 10 . 20.

온라인 수업으로 코로나 이겨내다

사하구 평생학습관 비대면 전환 현장 분주...수강생은 집에서 클릭

집에서 수업을 받고있는 수강생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 바람이 불고 있다. 사하구도 중단되었던 상반기 프로그램 중 일부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수강자는 평생학습관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강의를 들으며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할 수 있다. 새로운 평생학습의 모습이 그려진 현장으로 가 보았다.

사하구는 양방향 비대면 교육을 위해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현장 취재를 위해 찾아간 수업은 '영유아 오감발달 & 한글읽기강사 양성과정'이었다. 평생학습관 직원과 강사는 강의 30분 전부터 여러 가지 장비와 음향 테스트, 동선 확인 등으로 분주했다. 이전의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속에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강의가 시작되자 모두가 숨죽이고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했다. 진행요원은 강의 시나리오대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강사를 비추었다가 준비된 동영상을 틀었다가 다시 강의 화면으로 돌아오도록 조정했다. 또 다른 진행 요원은 출석한 수강자들과 밴드 채팅 창에서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문제점 해결이나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했다. 네이버 밴드에서의 강좌는 수강자가 80% 이상 밴드에 접속하고 있어야 출석으로 확인된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끝난 후 약간의 편집을 거쳐 재방송으로 강의를 복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허경인 강사는 "강의 경력 20년 만에 온라인 수업은 처음 해 본다. 첫 수업 때는 신기하고 재미있었고, 하다 보니 점점 보완점이나 진행 요령도 생겼다"라고 했다. 온라인 강좌 진행요원은 "모두가 라이브 방송은 처음이다 보니 공부를 많이 했다. 실제 수업에서는 강사와 스태프, 장비 삼박자가 모두 잘 맞아져야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순간에는 노련한 강사가 잘 대처해 주신 것이 감사했다"라고 공을 돌렸다. 이희정(40세·신평동) 수강자는 "6살 자녀가 있어 이번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소리가 가끔 끊기는 현상이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비대면 강좌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기꺼이 참여할 생각이다. 반면에 교구 만들기나 강사 양성과정 시범강의처럼 대면 수업이 훨씬 효과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수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평생학습관은 지금도 최상의 온라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미영 평생학습구민기자
ivy1201@hanmail.net

평생학습 결산표를 읽다

성과공유회 30~31일 체험 공연 등 펼쳐져

제5회 사하구 평생학습 성과공유회가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31일 오후 5시까지 평생학습관과 제2청사에서 열린다.

성과공유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간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평생학습 홍보부스가 제2청사 1층에 마련되며 평생학습관 강의실에서는 마크라메 마스크 목걸이, 우드버닝 휴대폰거치대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을 희망하는 사람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또는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각종 전시물도 30일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관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다.

평생학습을 주제로 한 기획 공연과 동아리 공연은 31일 오후 3시부터 제2청사 대강당에서 열린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입장관객을 75명으로 제한하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행사장을 찾지 못하는 구민과 함께 즐길 계획이다.

문의 : 사하구 평생학습관
051-220-4118

이미성 평생학습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사하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개강

사하구 평생학습관은 10월부터 하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격증 과정을 비롯해 2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컴타&바디퍼커션 지도자 과정, 게임 과몰입 집단상담, 마크라메 행잉 바스켓 만들기 등 눈 여겨 볼만 한 강좌들이 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좌도 마련되어 있다.

모집은 각 프로그램 개강 전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신청은 모바일 앱과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www.saha.go.kr/edu)로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평생학습관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문 의: 사하구 평생학습관
051-220-4117

이경녀 평생학습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고전미술을 활용한 예술 감수성 높이기

사하예술교실 첫 수업...12월까지 열려

"여러분 이 방을 딱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화려한 것 같아요, 아니면 소박한 것 같아요?" "화려해요!" "아니에요!" "그림만 화려해요!" 강사의 질문에 교실은 순식간에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떠들썩해졌다. 강사가 모니터를 통하여 보여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아를의 침실'이다. 그의 작품은 초기에 인상주의 영향을 받아 밝은 색이 단순하고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어린이들은 이를 보면서 느껴진 마음속의 형상을 풀어내는 것이다.

사하구는 올해 교육부 지원으로 다행복공감학교 운영계획을 세웠다. 그중 사하 예술교실은 초·중학생의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2월부터 시작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9월 29일 괴정초등학교 1학년 1, 2반에서 첫 시간이 열렸다.

강사는 화가의 생애와 그림을 설명하며 그림 속의 색채와 형상에 대한 물음으로 어린이들의 마음을 이끌어냈다. 작은 유화용 캔버스와 물감을 나누어 준 뒤 모니터와 칠판에 화가의 그림을 붙여놓고 소책자 화보집을 주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리게 했다. 연필로 구도를 잡고 난 다음 물감을 칠하여 마감했다. 강사는 어린이들을 돌아보면서 "너무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느낀 대로 하면 됩니다. 고흐의 작품을 참고로 해서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라며 무엇보다도 자기 생각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완성된 그림을 교실 뒤편에 전시했다. 감탄스럽고 놀랍도록 예쁜 색채의 세계가 펼쳐졌다. 불빛과 햇빛 그리고 별빛으로 표현된 고흐의 빛으로 오랜만에 학교에 온 어린이들의 답답함을 날려버리는 시간이었다.

사하다행복교육지원센터의 도소영 강사는 "1학년 친구들에게는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명화를 통해 화가의 일생을 알게 되고, 그리기 체험을 하면서 예술적인 공부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 언젠가

는 남다른 느낌이 올 것이다."라고 했다. 1학년 2반 담임 최숙자 교사는 "고흐의 색채감과 그림이 가진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좋았다. 미술적 감성을 이끌어 주는 좋은 수업이었다."고 했다.

'사하 예술교실 - 찾아가는 고전미술'은 9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괴정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3개 초·중등학교 31개 반이 신청되었다. 학교별로 신청을 하면 다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계획을 하여 강사를 보내준다. 올해 진행 중에도 신청하면 강의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사하다행복교육지원센터
051-220-4936
(http://saha.go.kr/happyedu)

박강균 평생학습구민기자
alberto1@hanmail.net

행복한 학습공간
동네방네학습관

캘리그라피 등 인기강좌 자리매김

사하구는 현재 지역 내 카페나 학원, 공방 등 공간을 활용해 배움을 나누는 동네방네 학습관 25곳을 운영하고 있다.
〈사하배움마당〉은 최근 평생학습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동네방네 학습관을 6회에 걸쳐 소개한다.

올해 사하구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주경"(일자리과정)은 중단되었고, "야독"(야간, 주말과정)은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단, 대관은 계속 중단이다.

동네방네 학습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코로나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작년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프로그램과 이용자들이 많이 활용한 기관을 살펴보았다.

형설모두학교에서 열린 '캘리그라피'수업은 한글을 배우고 있는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더욱 특별하다.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텀블러와 에코백에 한글을 쓰고 꾸미는 작업으로 재미를 더했다. '바다미술제 제대로 보기' 강좌도 인기가 많았다. 도슨트로 활동하는 강사가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며 이해를 도왔다. 사물놀이 동아리 시설 소리

너름에서는 방음이 잘되는 특성을 살려 야간에 '웃음치료사 양성과정' 을 운영하였는데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졌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향기를 그리는 라떼아트' 강의를 진행했다. 드립커피 강좌를 시작으로 다양한 카페메뉴, 라떼아트까지 시리즈로 진행하여 인기가 많았다.

등록된 여러 학습관 중 이용자가 많았던 곳은 '워터웨이 낙동강문화관(을숙도), 아이비츠학원(당리동), 새동아 직업전문학교(하단동)' 이다. 낙동강문화관은 주변이 한적해 하모니카 같은 악기 수업이 많았다. 수업 외에도 계속해서 연습장소를 제공해주었다. 아이비츠 학원은 학습기자재가 잘 갖춰져 있어 영어를 배우기 위해 모인 학습자가 약 38회나 이용한 시설이다. 새동아 직업전문학교는 접근성과 시간대가 좋아 장소 공유가 가장 많았다.

개인사업장에서 장소나눔을 적극 실천하는 기관들이 있어 평생학습이 더욱 풍성해지는것 같다.

김정숙 평생학습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자연으로 작은 여행 떠나요

사하자연학교 참가자 모집

평생학습관에서 양성된 생태해설사 '생태고우니'와 함께하는 하반기 사하자연학교가 열린다. 몰운대, 승학산 자연학교 7개 코스 외에 아미산 자연학교와 을숙도 자연학교 6개 코스가 신설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사하자연학교에서는 생태관찰과 체험놀이, 생태공예 등을 배운다.

한 수업 당 15명 이내로 모집인원을 제한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개별활동 위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운영되고 선착순 모집 중이다. 신청은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체험료는 무료이다.

대면 수업이 어려워진 요즘 야외에서 사하의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사하자연학교를 추천한다.

문의 : 사하구 평생학습관
051-220-5546~7
(http://www.saha.go.kr/edu)

고명옥 평생학습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아름다운 그대

춤이 삶의 활력소가 되다

고우니의 꿈 윤은순 단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객을 즐거운 흥에 몰입시키면서 사하구를 널리 알리는 '고우니 의 꿈' 윤은순(54세 · 다대동) 단장을 만났다.

제주도가 고향이라서 아는 사람이 라고는 남편밖에 없는 부산에서 세 아이의 엄마로서 살림만 했는데 지인의 권유로 사물놀이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무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내성적인 성격에 누구와 대화도 잘 못하던 그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이다. 무용은 해본 적이 없는데 표출을 해보니까 되는 구나 가슴이 벅찼다. 판소리 동아리에도 가입하여 서서히 바빠지기 시작하였다. 2018년에는 판소리지도자 1급 자격증과 한국무용지도자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같이 자격을 취득한 이들과 한마음이 되어 좋은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결성한 것이 '고우니의 꿈' 동아리이다.

2018년 전국 생활연합회 공연이 1박 2일로 서울에서 열렸는데 다른 동아리 4팀과 합쳐서 '다대 진성'을 주제로 공연하여 사하구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지난해에는 전국 공연이 청주에서 열렸는데 을숙도 환경 살리기라는 주제로 '을숙도 메아리'를 공연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을숙도 메아리가 반응이 좋아 2019년 부산평생학습주간 행사에도 참여하여 또 한 번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였다.

그 외에도 사하예술제와 사하구 생활연합회 동아리 문화제, 정월대보름날 행사에도 매 회 공연한다. 요양원에서의 효 잔치는 걷지도 못하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 봉사의 참 의미를 느꼈다.

시어른이 살고 있는 밀양에서 경로잔치에 초청되어 시어머니로부터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었고 그동안 이해를 못 했던 보수적인 남편도 변하

여 알아주니 더더욱 좋았다.

수상 경력도 대단하다. 2012년 진해에서 열린 한국무용 공연에서 장려상, 2017년 판소리대회에서는 신인부 대상, 2018년에는 동아리연합회 총무를 맡으면서 1년에 한 번 받는 문화예술훈장상 등을 수상했다.

공연 후 관객과의 만남에서 전공자는 아니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열심히 노력한 작품임을 알아줄 때는 가슴이 뿌듯해지고 고마움도 느낀다. 더 많은 공연이 잡혀 있지만 코로나19로 취소가 되어서 안타깝다.

"누구든지 배우기를 망설이고 있다면 먼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문화회관에 가서 꾸준히 배워 보세요" 고전무용이 삶의 활력소요, 기쁨이 된 그는 "그러면 삶이 바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김필분 평생학습구민기자
shjpbun@naver.com

가족의 행복을 만드는 곳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가정폭력, 양육문제 등 가족 간의 문제가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 사하구 건강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가족관계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곳이다. 가족상담, 가족문화, 가족교육, 공동육아나눔터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신평역 4번 출구 앞 제2청사 3층에 있다. 사무실 출입문은 누구나 언제든 환영한다는 마음으로 활짝 열려 있다.

여기서도 코로나19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찾기에 분주하다. 센터의 대면 사업은 코로나19로 많은 부분 비대면 사업으로 바뀌었다. 가장 인기가 있는 가족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사 간의 마스크 착용과 가림막 설치로 진행되고, 전화, 사이버로도 가능하다. 심리검사, 성격유형검사도 할 수 있다. 상담비는 무료이다.

여러 가정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체험 키트를 직접 받아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은 부모들이 함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품앗이 형태로 그룹을 만들어 아이를 돌보는 가족품앗이 활동을 도와주고 또한 하단, 구평, 감천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을 저렴하게 대여한다. 상시프로그램인 '랜선 동화세상'은 체험 재료를 직접 받아 집에서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수업이다. 아버지-자녀와 함께 하는 돌봄프로그램은 월 1회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화분이나 놀이기구 만들기 등의 다양한 수업으로 인기가 있다.

손진희 팀장은 서먹했던 가족이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추억을 얻고, 그 관계도 좋아졌다는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참여자들을 통해서 사업의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의 :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051-203-4588
http://saha.familynet.or.kr

김미연 평생학습구민기자
01hanthis@naver.com

평생학습 벤치마킹 기후변화체험관 환경교육

유아에서 성인까지 맞춤 교육

올 여름 장마는 역대 최장기간인 54일을 기록했고, 집중호우로 세계 곳곳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여러 기상이변은 더 이상 북극곰이나 펭귄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부산 북구에는 이런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쉽게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있다.

이 곳에서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진행되고 있다. 주중에는 기관 및 단체, 주말에는 가족단위 관람객이 많다. 방문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인 '그린스쿨'과 부산 전 지역의 유치원, 초·중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기후학교'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린스쿨'은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1회용품을 이용한 다양한 재활용품 만들기로 진행된다.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용한 장마철 제습제 만들기' '구멍 난 고무장갑으로 인형만들기' 체험이 인기가 많다. 요즘 같이 1회용품 사용이 많이 늘어난 시기에 눈여겨 볼 만 한 프로그램이다.

'맞춤형 기후학교는' 매년 기후와 환경문제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9월부터는 온라인 수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사하구에도 학교로 찾아가는 환경교실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린스쿨' 같이 구민들이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쉽다. 사하구의 환경개선과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관련된 강좌 개설을 기대해 본다.

김수현 평생학습구민기자
16mmstory@hanmail.net